

KCR III 紹介, 解說

(Explanation of KCR, 3rd Edition)

順天鄉大 圖書館

李錫元

書誌記述의 時代的인 發展은 國家的인 것에서 國際的인 것으로까지 發展해 왔는데, 1970年代에 들어서서 마침내 基本記入의 標目敘이도 圖書의 書誌的 識別이 가능한 目錄記入法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는 UB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世界書誌統整)計劃에 의해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 國際圖書館協會聯盟)에서 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國際標準書誌記述)를 出刊(1969~1974개발)하였다. 그런데 이는 각 國家別로 特定한 形式을 가진 言語나 記述方式을 國際的으로 統一시킴으로 言語를 超越할 수 있는 記述方法을 通해 쉽게 圖書館間의 書誌接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機械可讀型으로 變換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ISBD는 圖書의 으뜸가는 識別要素를 書名으로 삼아, 항상 이를 記述의 첫머리에 적고, 著者表示는 나중에 적는 方式이다. 이는 우리 東洋의 傳統的 書名主記入法과 一致하는 目錄記入法으로 변한 셈인데, 目錄發達史上 著者主記入보다 한걸음 더 發達된 記入形態이며, 著作에의 直接接近이란 점에서 著者主記入보다 優位에 서는 것이라는 것이다.

目錄形式도 점차 科學化, 自動化(MARC, UNIMARC)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의 所產인 MARC Pilot project에 의해 目錄을 機械가 可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 정확한 資料檢索를 可能케 했는데, 이 方法은 1966年 美議會圖書館에서 實驗을 始作, MARC I Format에서 II Format으로 發展시켜 왔다. 이

로써 우리는 目錄의 目的達成을 위해 점점 組織化, 機械化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적으로 目錄의 必要性, 신속성, 정확성을 강조한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圖書館目錄도 점차 發展되어야 하고, 또 하나의 圖書館만을 위한 것보다는 地域化, 國家化, 國際化에 對備할 수 있는 目錄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77年 圖協 目錄分科委員會에서는 「國際標準書誌記述」에 의한 目錄規則改定作業을 進行해오다가 1983年 드디어 「韓國目錄規則」 3版을 發刊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KCR 3版의 「記述篇, 標目을림指示篇」만 첫째권으로 내놓고, 그 나머지篇, 곧 「標目, 排列에 관한 규정篇」은 그 完成을 기다려 다음에 쳐낼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ISBD를 適用해 만들어진 KCR 3의 記述事項(7範圍 基本事項)의 構造와 그 諸要素의 記載順序 및 句讀點을 一覽해 보면,

1. 書名著者事項

 本書名, 別書名

 = 對等書名

 : 副書名 및 (또는) 雜題

 , 卷次나 回次나 年次

 / 첫번째 著者表示

 ; 副次的 著者表示

2. 版事項

 · 版表示

 / 그 特定版에 관련된 첫번째 著者表示

 ; 그 特定版에 관련된 副次的 著者表示

3. 發行事項

 · 첫번째 發行地

- ； 두번째 以下의 發行地
- ： 發行處
- ， 發行年
- 4. 形態事項
- 面張數 및 (또는) 卷冊數
- 5.叢書事項
- (叢書의 本書名)
- = 총서의 對等書名
- ： 총서의 副書名：雜題
- / 叢書의 著者表示
- ， 총서의 ISSN 番號
- ； 총서의 卷號
- (下位叢書)
- (두개 이상의 獨立叢書의 두번째 이하의
叢書)
- 6. 註記事項
- 7. 書籍番號 求得條件事項
- 書籍番號
- ： 價格表示
- (裝釘등 表示)
- 두번째 이하의 書籍番號 求得條件表示와
같다.

目錄에 있어 文段나누기 — 1) 書名著者事項, 版事項, 發行事項을 첫文段으로 2) 形態事項, 叢書事項을 한 덩어리로 하여 둘째文段, 3) 註記事項은 각 註記를 마침표·빈칸·붙임표·빈칸(·)으로 해서 세번째 文段으로 잡을 수도 있고, 性質을 달리하는 여려개의 文段으로 記載할 수도 있는. 4) 書籍番號 求得條件事項은 한文段으로 잡아 記載한다.

줄머리 잡는 법 — 記述의 줄머리 잡는 법은 첫줄 내쓰기式(Hanging Indention)의 記載形式을 취한다.

記述의 情報源 우선 순위 — 記述은 原則的으로 그 圖書에 나타난 情報 그대로 記載하며, 그 준거의 우선 순위는 1. 標題面, 版權記 2. 略標題面, 卷頭 3. 表紙 책등(書背) 4. 序文, 後記, 本文, 附錄 등 그 圖書의 나머지 部位 5. 그 圖書 이외의 情報源에서 취하되, 으뜸 情報源 이 외에서 얻은 情報는 각 팔호([])로 묶어 記載한다.

<圖 1>

書名著者事項	_____
版事項	_____
發行事項	_____
形態事項	(叢書事項 _____)
註記事項	_____
書籍番號 求得條件事項	_____

標目올림指示 — 記載順序는 먼저 書名標目과 著者標目을 標目의 種類와 관계없이 그 要素가 記述部(註記事項 포함)에 적힌 順序대로 記載하고, 그 뒤에 主題標目을 記載한다. 指示된 每標目 앞에는 아라비아 數字로 一連番號를 매기되, 書名標目과 著者標目에 대한 番號는 그 다음에 마침표(·)를 表示하고, 主題標目에 대한 番號는 그 다음에 단한쪽 원괄호()를 表示하여 구별한다.

KCR 3版의 달라진 점 — 1. 國際標準書誌記述의 7가지 報本記述事項順序에 따라 記載, 句讀法을 채용한 점. 2. 우리의 傳統的 書名主記入法과 흡사한 書誌記述을 Unit Card로 삼아 目錄記入을 하는 方式, 즉 圖書識別의 구실을 하는 記述部와 檢索의 실마리 구실을 하는 標目部를 각기 獨立시키는 目錄記入方式을 채용한 점. 3.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目錄規則을 東書는 KCR, 洋書는 AACR을 二元的으로 適用해 왔으나, 3版은 東書와 洋書를 共用으로 使用할 수 있게 그 條文과 例示를 다양하게 마련한 점. 4. 人名記入標目에서 韓國人名의 姓 다음에 (,)를 使用하지 않는 점 등 종전의 것과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ISBD를 적용, 개정된 KCR 3版을 많은 도서관에서 채택 적용, 書誌, 目錄을 作成, 編成, 利用하게 된다면, 自館은 물론 國家的, 國際的으로도 뛰어지지 않는 圖書館業務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電算化에도 方便이 되어 그 便利性, 效率性을 앞당겨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